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0월29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2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기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APEC 주간입니다. 외교적인 큰 행사인 APEC 기간 동안 만이라도 APEC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와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활동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보다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 왔다가 인사말씀만 하고 바로 또 보임됐었는데요 출석률이 모자라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저도 새롭게 보임이 돼서 왔는데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되었으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기관증인(안)과 관련해서는 9개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발언 또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토론을 그리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어떻게 합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 증인 명단에 일반증인으로 아무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아주 초기에 국회 관례상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때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는 그 전례를 들어서 총무비서관

출석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무비서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각종 재판에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공범의 변호인을 사임시킬 정도로 실세로서 일을 해 왔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는 총무비서관 임명된 이후에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어서 산림청장 또 해양비서관 등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될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때 증인 채택이 됐다면 아마 그다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들이 묻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갑자기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직책까지 변경한 것에 따라서 의혹이 다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와서 총무비서관이 아니니까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우리 운영위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이 필요하다.

양당 원내대표단께서 합의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운영위의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은 지금 여야 합의로써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양당 간사님의 협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김현지 비서관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조건들을 달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증인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입니다. 물어볼 게 그렇게 많아서 한 달 전부터 지금 이제 의결하는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했던 겁니까? 이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략이 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밤낮없이 일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불러서 모욕 주고 망신 주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기업의 사장, 신라호텔 사장은 왜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의 남편까지 부르겠다 하는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불러 가지고 도대체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과거 성남에서 있었던,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가지고 남편을 불러 가지고 모욕 주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민정, 인사, 대변인, 실무급 비서관들, 업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뭘 묻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게 많습니까?

그렇게 의정 활동이 심각함을 알면 과거 계엄을 했을 때 있었던 그 밑의 비서관들 불러 가지고 잘잘못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희도 묻고 싶은 점이 너무 많았는데 중인 합의가 불발된 것이 오히려 더 저희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재판을 해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한번 나갔다고 JTBC 대표부터 편성국장, 예능국장, CP, PD까지 중인으로 출소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불러서 뭐 할 겁니까? 국회 냉장고 뒤질 겁니까?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한번 시켰다고……

앞으로 대통령에 관련돼서 무슨 협조를 하더라도 다 중인으로 불러 가지고 모욕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받아 주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이 없고 상식적인 국회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APEC 정상회의 첫날입니다. 외교·경제 현안이 산더미 같은데 야당이 여전히 정쟁에 매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이나 정쟁의 장으로 쓰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관증인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운영위 한 번 참석해 보고 처음 해 보는 건데요. 지난 9월에 저희 운영위 처음 참석했는데 그 당시 김현지라는 분 중인 채택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파행이 돼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김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길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람의 보직을 바꿔 가면서 그다음에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그 김현지라는 사람의 중인 채택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많이 언론에 나와서 들으셨겠지요? '애지중지 현지', 저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뭐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니까?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과거에 시민환경단체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었던 당시 김현지 씨가 정책위원이었던 현 산림청장 김인호와 지역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자는 셀프 제안에 당시 성남의제21에 셀프 의견 제출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옹벽 아

파트가 현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송에 녹취된 것을 보면 김현지라는 분이 당시 경기도청 소속 배소현에게 파일을 지워라, 없앨 거면 짹 없애라는 등 발언도 했고 논란이 사실인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대통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토록 김현지라는 사람은 현재 대통령과 22년간 많은 일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도 하고 갑자기 부속실장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현지, 뭐지’,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는 누구나 다 아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내가 실세야’, 또 정무수석이 ‘실제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세야’ 이렇게 막 발언을 합니다. 원래 진짜 실세는 자기가 실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진짜 실세가 김현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쟁이라고 하시는데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도 중인 채택하고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무속인도 막 부릅니다. 필요할 땐 대통령도 부르고 대통령 영부인도 부릅니다. 이렇게 아무나 부르던 더불어민주당이 왜 갑자기 김현지라는 사람 이렇게 감쌉니까?

저는 그래서 김현지, 현재 산림청장 김인호, 배소현 씨를 즉시 일반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능력 있는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 ‘여사’라는 명칭을 가졌던 이상한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게 훌륭한 대통령 영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지요. 기존에 악마화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데에 급급한 것 말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참 비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누가 해도 윤석열보다는 낫겠지요.

그래서 김현지입니까? 그렇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참모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제1야당이라는 공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온갖 유튜버들 끌어들이고 해서 뭐 하나 있는 것처럼 온갖 음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근거로, 자가발전한 것을 근거로 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까지 부르려고 하는 겁니까? 김현지가 안 되면 대통령 아는 사람 다 줄줄이 하나씩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원래 국정감사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관례는 총무비서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전의 총무비서관이 했던 일까지 다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했던 사람까지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총무비서관이 전직도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왜 유일하게 김현지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만 봐도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 내란의 진행과정을 따져 묻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실장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 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 할 때 제일 갑갑한 게 뭔 줄 알아요? 다 아시지요? 지적할 것 없을 때입니다. 지적할 게 없으니까 국정감사 하기 싫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주장해서 국정감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보도 보면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고 오전에 나오는 것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오전에 불러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나오면 뾰록날까 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뾰록날까 봐 지금 그것도 안 받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각성하십시오. 국정감사를 하세요,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은혜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지 중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 데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그러니까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요새 민주당의 모 과방위 위원장이 양자역학 공부한다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양자역학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현지 비서관 나온다, 안 나온다 벌써 얼마 됐습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것. 김현지 비서관이 슈뢰딩거의 공직자입니까?

저는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라는 데에서 국감 중인이 채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명 대통령과 직결된 김용·이화영 이 재판까지 사법 방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왜 김현지 비서관은…… 민주당분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그렇게 불러내서 조롱하고 호통하면서 왜 1급 비서관은 오는 걸 그렇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십니까? 저는 서열 0위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위원님들 말씀 중에 김현지 실장 중인 채택은 정쟁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의혹이 있으면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의혹 검증을 왜 정쟁이라고 하십니까? 게다가 불러서 질의 한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정쟁인 줄 아세요? 정쟁이라는 평계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걱정하고 있다는 자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국감 직전에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겨 놓고 출석 피하려고 공직 돌려막기로 테트리스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저는 정부 여당의 김현지를 숨겨야 된다는 강박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김현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중인 채택 모조리 다 안 하시고 이것은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를 국정 은닉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중인의 채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야당의 무더기 중인 요구 그리고 스토킹 수준의 중인 요구 이것은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까 김은혜 위원께서 말씀, 오전 출석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냥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지금 김현지 실장 출석을 가로막는 것은 저는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서 판을 키워서 의도적으로 국감의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 실장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선을 넘은 정치 공세입니다.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소속 직원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간 김 실장을 비난하는 대변인 논평이 25건입니다. 하루에 1건입니다. 원색적으로 김 실장을 비난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안방마님, 상왕, 범죄 공동체 등 자극적인, 선동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실을 흠풍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해수위, 여가위 등 6개 상임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감이 아니라 정쟁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쟁 수단임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6개 상임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국힘의 원내지도부가 6개 상임위에 정쟁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김 실장이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판을 키워서 정치적 쇼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감 직원에 대한 신상 털기,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국감이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게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기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으니까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시켜 줘야지요, 야당은. 한 번 더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해서 한 분씩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통령실의 김현지 실장을 방어하라는 지침을 아마 확실하게 받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정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급 공무원은 고위공직자입니다. 대통령실 1급 공무원의 신상이 베일에 가려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경력을 가졌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세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적 사항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도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인적 사항, 학·경력에도 무언가 우리가 의혹

이 있을 만한 것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는 김현지 씨가 무슨 이번 정권의 블랙 요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김현지 씨는 권한남용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강선우 장관후보자가 굉장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되었지요.

그다음에 설주완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사임시키는 데 전화를 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요. 이것이야말로 권력남용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일개 비서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인사를 가지고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이 인사를 개입하고 본인이 이것을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나와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과연 김현지 실장이 1급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자격 여부에 대해서 이 인사가 타당한가에 대한 것의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은폐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것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여당 위원님들이 나서서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요.

그리고 증인 출석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정부에서 청문회 할 때 증인 출석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저 교육위인데 인사청문회 두 번이나 했습니다. 단 1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정권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기 발언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김병기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위원 내란당에서 그런 말 할 자격 없잖아요. 내란정권이었잖아요.

○강선영 위원 서미화, 내란당이라니!

○위원장 김병기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어디서 반말이야? 당신 뭔데 반말이야? 반말하지 마세요!

○백승아 위원 반말하는 거야? 얻다 대고 이름 불러? 반말하지 마!

○강선영 위원 당신이야?

○백승아 위원 당신이라니? 얻다 대고 이름을 불러?

○이기현 위원 반말을 한 사람은 당신이지요.

○강선영 위원 내란당이라니?

○이기현 위원 아니, 반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왜 반말을 하세요?

○서미화 위원 강선영 위원님, 말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김병기 조용, 조용히 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서미화 위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내란당이라고 하지 마세요.

○서미화 위원 해산당이야, 그러면!

○위원장 김병기 마지막으로……

○문진석 위원 10초만 할게요.

○위원장 김병기 예?

○문진석 위원 10초만.

○위원장 김병기 10초요? 10초만 딱 하셔야 됩니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신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 반말 못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각 당 위원들끼리 반말하면 되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반말한 것, 그러나 내란당이라고 한 것도 사과하세요.

○백승아 위원 손가락 샷대질하면서 하는 게 죄송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하는 거냐고요. 손가락 내리세요! 우리 당 위원한테 손가락질하지 말라고요.

○강선영 위원 백승아 위원한테 한 것 아니니까, 서미화 위원한테 반말한 것 사과합니다.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서미화 위원 강선영 위원님, 시각장애인 놓간하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미화 위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기본적인 감수성도 없으면서.

○강선영 위원 내가 언제 뭐라고……

○백승아 위원 ‘내가 언제 뭐라 그랬어?’, 손가락질하면서 ‘미안해요’ 이게 미안한 거예요?

○곽규택 위원 야, 법사위보다 더 분위기 좋네.

○백승아 위원 법사위 분위기 흐리는 장본인 아니십니까?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신장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기 신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님, 발언하지 않을 거면 발언 종결시키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아이고, 1당·2당 아주 그냥 등쌀에 제가 발언 기회도 못 받을 뻔한 데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운영위 국감 참여했던 분은 여기 서미화 위원님하고 전용기 위원님하고 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요 7개월은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5개월 이재명 정권이었습니다.

우리 국감 5개월 국감 합니까? 1년 치 국감 하는 것 아니에요? 1년 치 국감을 하려면, 작년에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1차장,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운영위나 이런 데 국회에 나와

가지고 다 위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증 고발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1년 치 국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도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 다 했어요.

그런데 양당 간사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5개월짜리 국감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년 치 국감 하려면, 정진석 거짓말했지요, ‘스크린 골프장 그런 것 없다’ 거짓말했어요, 윤영위 국감 나와서. 김성훈, 증인 선서까지 했는데 ‘스크린 골프장 없다’ 또 거짓말했어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나토 3종 세트 가지고 ‘두 점은 빌렸고 한 점은 중소기업한테서 산 거다’ 거짓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불러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6월 3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역술인 행정관 김 씨가 있습니다. 한겨레21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소수종교 담당이지만 부가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 새로 채용하는 직원들 사주 보고 윤석열·김건희와 궁합이 맞는지 확인했다’ 또 모 역술인 진술도 한겨레21에 이대로 나옵니다. 이분 한 게 뭐냐? ‘굿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다. 무속 관련된 일을 하면서 명리학 공부해서 택일력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택일력은 윤석열·김건희 사주팔자에 따라 언제 중요한 이벤트를 해야 하는지, 어느 날을 피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는 거다. 김 씨가 국정의 중요한 행사 날짜를 정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 사람 불러서 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는지, 당신이 택일해줬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진석,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알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불러 주십시오, 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말씀 들어 보면 김현지, 저는 지침 받지 않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김현지가 스태프라는 이유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최측근 김건희 부릅시다. 김용현 부르고요. 그래 같이 불러요, 김현지도 부르고.

○위원장 김병기 발언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위원 김건희 부르면 될 것 아니에요. 다 불러 주십시오, 다.

○위원장 김병기 이제 그만 토론 종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저도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기 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이었지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토론의 종결 동의가 있어서.

박상혁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들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토론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 및 제108조에 따라서 토론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 마지막 한 분 주셔야지 1명 남겨 두고 그렇게 종결하십니까, 많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병기**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24인 중 찬성 17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국정감사 중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관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서미화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기**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관증인과 관련해서 오늘 의결 이후에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되었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강선영 곽규택 김기표 김남근 김병기 김영배 김은혜 김준혁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박수민 박충권 백승아 서미화 서지영 송언석 신장식 유상범 이기현

이훈기 전용기 전진숙 조지연 채현일 최수진 허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성훈	서지영	국민의힘	2025. 10. 1.
오세희	김기표		
조인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2025. 10. 28.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5)

9월 24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3)

9월 25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5.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0)

9월 2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3)

10월 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2)

이상 3건 10월 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0월 1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10월 1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1)

10월 2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5)

10월 2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1)

10월 2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2025. 10. 2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10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요청

(2025. 10. 23. 의장 제의)

10월 23일 회부됨

임시회의록